

“설 끝나도 초저가 경쟁”... 유통업계 잇단 할인전

봄철 먹거리·삼삼데이 겨냥... 990원 삼겹살 등 선풍 장바구니 채감 물가 낮추기 주력... '1+1' 혜택 강화도

대형마트가 봄철 먹거리 수요와 삼삼데이를 겨냥한 할인전에 돌입했다.

특히 고물가 장기화로 외식보다 집밥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눈길을 끈다.

롯데마트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3월 '통큰데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큰데이'는 신선·가공 먹거리와 생활 필수품 등 전 카테고리에 걸쳐 최저가 수준을 제공하는 롯데마트의 시그니

처 할인 행사다.

먼저 롯데마트는 3월 3일 '삼삼데이'를 앞두고 삼겹살과 주요 신선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26~27일 '수입산 끝돼 삼겹살(100g)'을 행사카드 결제 시 990원에, 28일부터 3월 3일까지 '국내산 삼겹살(100g)'을 행사카드 결제 시 1390원에 판매한다.

또 '만능대패 오겹살(700g, 냉동, 수입산)'과 '만능대패 삼겹살(800g, 냉동, 수입산)'은 각 8990원, 9990원에 내놓는다.

고기와 곁들여 먹기 좋은 '새송이버섯'은 2990원에, '청도 미니리'는 3990원에 판매하며, '쌈장 전 품목은 '원플러스원(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수산·채소 상품을 비롯해 후식으로 즐기기 좋은 과일도 할인 혜택을 강화했다.

더불어 가공 식품과 생필품 할인 행사도 진행하며 이외에도 통큰데이 기간(26~3월 2일) 동안 오프라인 매장서 7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 할인 쿠폰팩을 증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행사 기간 중 '롯데마트GO' 앱에 접속해 응모하면 된다.

홈플러스도 26일부터 3월 2일까지 '홈플러스 5일장'을 전개한다. 이번 행사는 삼겹살, 초밥, 닭강정 등 가

족 외식 대체 메뉴부터 신선식품, 가공식품, 디지털까지 카테고리별 아우르는 가격 구성으로 장바구니 채감 물가를 낮추는데 주력했다.

홈플러스는 삼삼데이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육수수를 먹고 자라 균일한 마블링과 고소함이 일품인 미국산 '육덕돼 삼겹살·목심'(100g, 1인 1kg 한정, 온라인 제외)을 990원에, '한돈 일품 포크 삼겹살·목심'(100g, 서귀포점 제외)은 1990원 초특가에 판다.

캐나다산 '보맥돼 삼겹살·목심'(100g)은 26일부터 3월 4일까지 멤버십 대상 반값인 1290원에 내놓는다.

1+1 혜택도 풍성하다. '풀무원 국산콩 두부'(6종, 온라인 제외)는 1990원부

터, 'CJ 핫반 컵반·국·탕·찌개'(20여종)는 각각 4990원·7490원에, '냉동 밥·핫도그'(10여종)는 6490원부터, '동원 리챔'(3종)은 각 1만6490원에 판매한다.

또 신상품 '잘풀리는집·크린센스 화장지'를 각 1만7800원, 2만2800원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고,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한다.

뿐만 아니라, '냉동 디저트'(10여종)는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하며, '썬터치 통주물 블랙 프라이팬·공중팬'은 멤버십 대상 반값으로 각 9900원에 한정 수량으로, 신상품 '클라 캡슐세제(3종)'는 각 9900원에 선보인다.

이밖에도 홈플러스는 26일부터 3월 4일

까지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병행해 장바구니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이마트는 삼삼데이를 앞두고 삼겹살·목심 등 물가를 760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26일부터 3월 4일까지 '탄탄포크 삼겹살·목심'과 '겉바속촉 네모 삼겹살'을 100g 당 각 880원, 1080원에 내놓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3월 연휴와 삼삼데이를 앞두고 외식 수요와 집밥 수요를 모두 고려해 신선 먹거리와 생필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채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지속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를 이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유통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AI·반도체 등 표준개발 산업부, 459억원 투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 증진과 글로벌 표준 선점 지원을 위해 올해 국가기술표준개발사업에 총 459억원을 투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투자 규모는 작년보다 34억원 증액된 것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선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미래차·로봇·양자·원자력·항공우주 등 제조 AI 전환(M.AX)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15개 분야 신규 과제에 86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제품·부품의 사양을 결정하는 사실상 표준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 대학, 협회, 단체 등은 국표원(www.kats.go.kr) 및 법무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다음 달 27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표준은 미래기술의 방향성과 기준을 정립해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전력'이라며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표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학기 '기능성 의자&책상' 선풍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신학기를 맞아 다양한 기능성 의자 및 책상을 제안하는 '사이즈프' 팝업 행사를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사이즈프 팝업 행사장을 찾은 고객이 기능성 의자와 책상에서 컴퓨터 작업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중기부, 바이오·AI 분야 한·일 스타트업 거점 협력

노용석 1차관, 일본 쇼난 I-Park·CIC 도교 방문

한국과 일본이 바이오, AI·딥테크 등 첨단 분야에서 스타트업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1차관이 25일 일본 후지사와에 있는 쇼난 아이파크(I-Park)와 도교에 있는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를 방문해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한·일 정상 서훈외교 기초에 따른 고위급 추속 방위의 일환으로 양국 거점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차관은 이날 오전 쇼난 I-Park에서 후지모토 토시오 CEO를 만나 인천 송도(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조성 중인 K-바

이오랩 허브와의 연계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2028년 K-바이오랩 허브 완공 전까지 프로그램 중심 협력을 진행하고, 완공 이후에는 연구 장비와 입주 공간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협력의 첫 단계로, 쇼난 I-Park의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이노베이션 타이거(Innovation Tiger)' 한국 예선을 인턴 송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구조혁신 성과... 회생절차 연장 필요”

홈플러스 “비용 절감 등 효과... 2028년 흑자 전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시한이 10여일 남은 가운데 홈플러스가 구조혁신 계획 등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상구조혁신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과 사업성 개선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지난해 구조혁신 회생계획안 초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긴급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3000억원 규모 DIP 대출 추진, 슈퍼마켓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41개 부실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계획안을 두고 1차 검토의견에서 채권단이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서 서울회생법원이 정식 검토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측은 인력 효율화로 직원 수가 회생절차 개시 전인 지난해 2월 1만9924명에서 지난 4월 기준 1만 6450명으로 3474명(17.4%) 감소함에 따라 약 1600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총 41개 정리 대상 점포 중 19개 점

포를 올해 내 영업종료 할 계획으로 임대료 조정 및 부실점포 정리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만 1000억원이 넘고, 계획된 구조혁신안을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하고 영업을 정상화하면 오는 2028년에는 영업이익의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홈플러스 측은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슈퍼마켓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행 중인 구조혁신안을 완료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법원의 회생계획안 기결을 받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금난에 빠진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전국 임대점포 19곳 폐점을 결정했고 직원들의 1월 급여도 절반만 지급했으며 설 상여금과 2월 급여는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막기 위해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원을 선제 투입하기로 했다.

유통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제38회
무등기전국
배구대회**

■ 어린이부(남/여) ■ 여자클럽부
■ 초등학교 교직원부

2026.
4.11. | 토 | - 12. | 일
09:00~18:00

개막식 2026. 4. 11(토) 11:00~12:00
※ 개막식 내 경품추첨과 선수입장 퍼포먼스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화순 하니움스포츠센터 외 보조경기장

문의 무등일보 사업본부 062)606-7753

1주 최 | 무등일보(사)임디에스앤씨

1주 관 | 광주광역시배구협회·화순군배구협회

1주 원 | 광주광역시·전라남도·화순군·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광주광역시체육회·전라남도체육회·화순군체육회